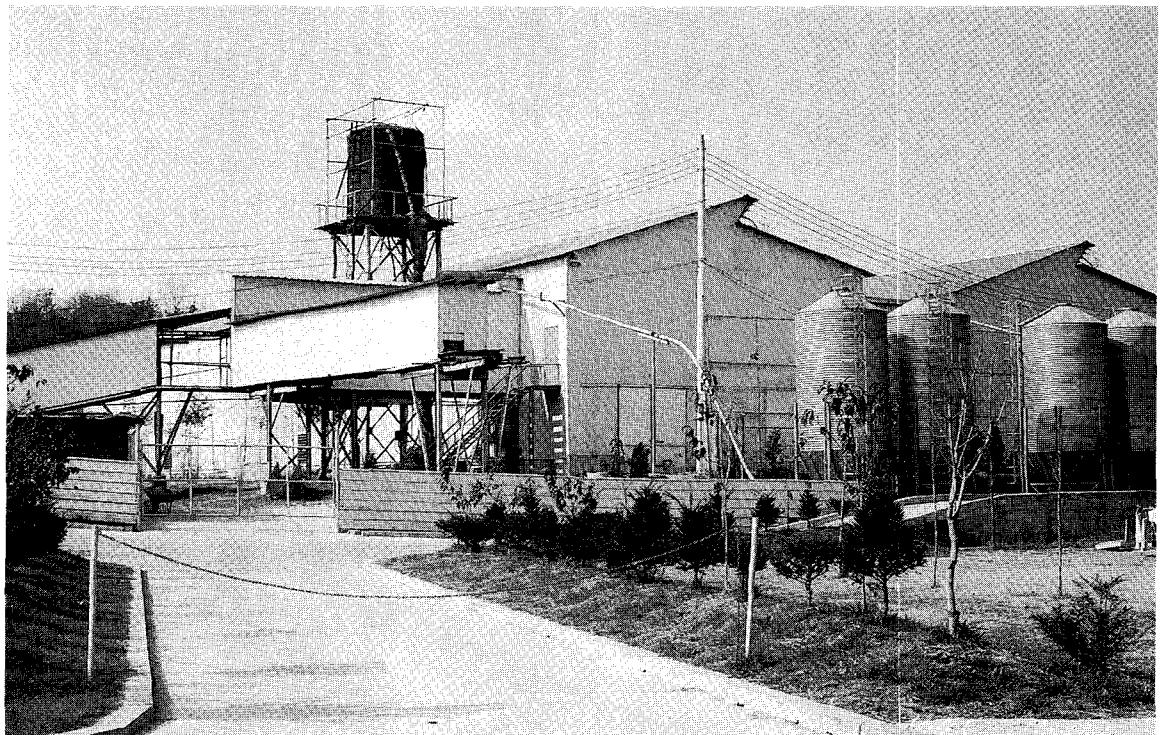


강남농장 (계란유통)

계란산업에서 생명공학산업으로 변신

◇ 취재 / 김종준 기자
(jjun@poultry.or.kr)

계란 유통 형태는 할인매장의 증가와 식자재 및 외식사업 발달, 소비자의 식품 안전성 의식 고조로 인하여 빠른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말하자면 생존하기 위하여 식자재업체와 대형 할인매장에 맞게 계란유통 구조는 변화되고 있다. 이런 변화의 주체들 중에는 계란을 직접 생산 하여 유통까지 일괄적으로 담당하는 농장이 늘어나고 있다. 계란유통의 선발 농장에서 생명공학 분야로 진출을 모색하고 있는 강남농장을 방문하여 계란유통 현황을 알아보았다.



△21만수규모의 실용계 농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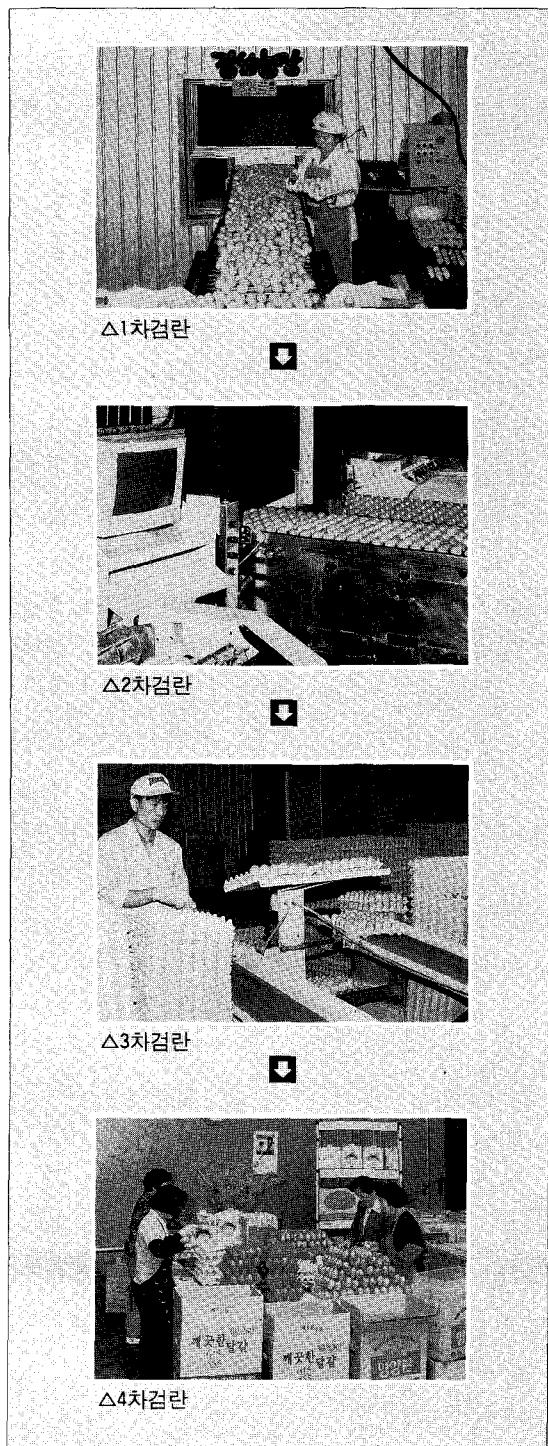
1. 4단계 검란으로 위생계란 유통

강남농장의 산란실용계 사육수수는 40만수로 일일 약 36만개의 계란을 생산하고 있다. 수도권 지역의 할인매장 및 식자재에 원활한 계란 공급을 위하여 여주와 용인에 물류센터 2곳을 운영하고 있다. 2곳의 물류센터에서 1일 처리 물량은 50만개로 여주 농장에서 생산되는 특수란중 70%는 여주 물류센터에서 처리하고, 잔여 물량과 퇴계원 농장 생산 계란, IgY 계란, 유정란 등은 용인 물류센터에서 처리하고 있다.

생산 계란의 품질을 높이기 위하여 사육단계부터 방역관리, 사료품질관리, 사육기간 제한(72주령), 2주일 한번씩 품질 테스트를 하고 있다. 또한 계란 선별시 세척, 코팅, 건조, 검란을 철저히 하고 있고, 배송시 반드시 탑차를 이용하여 계란이 외부로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등 언제나 위생적인 계란만을 공급할 수 있다. 특히 산란후 선별 과정에서 검란은 계란이 소비자에게 판매전 최종단계이기 때문에 4단계로 나누어 검사하고 있다. 계사에서 선별기로 이송되는 시점에서 파란이나 오란을 선별

표1. 강남농장 생산계란 현황

구 분	종류(개수)
특수란	강남 영양란(10개), 영양대란(20개), 슈퍼영양란(15), 자연방사 유정란(10개), 30영양특란(30개)
일반란	- E-플러스 일판란(30개), 싱싱특란(10개), 싱싱왕란(10개), 첫달걀 초란(10개) - 청정란(10개, 30개) - 슈퍼 골드(15개), 알뜰란(10개, 15개), 왕중왕란(15개), 알동이특란(30개), 대란(30개)
기능란	닥터 IgY(10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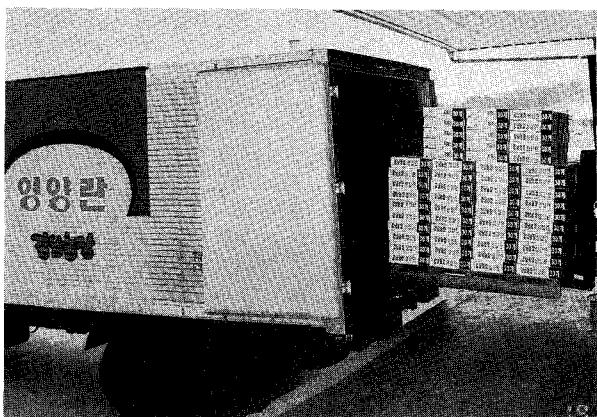


△검란과정

하는 1차 검란이 이루어지고, 2차 검란은 형광 검사로 미세한 실금이 있는 계란까지 선별한다. 3차 검란은 계란을 난좌에 담을 때 직원이 육안으로 실시하며 최종적으로 포장할 때 검란을 실시하게 된다.

2. 계란은 산란 후 24시간 안에 소비자에게 공급

농장에서 계란 유통을 하게 되면 가장 큰 장점이 유통단계 및 유통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계란유통은 탑차만 운행하여 계란 신선도 유지에 만전을 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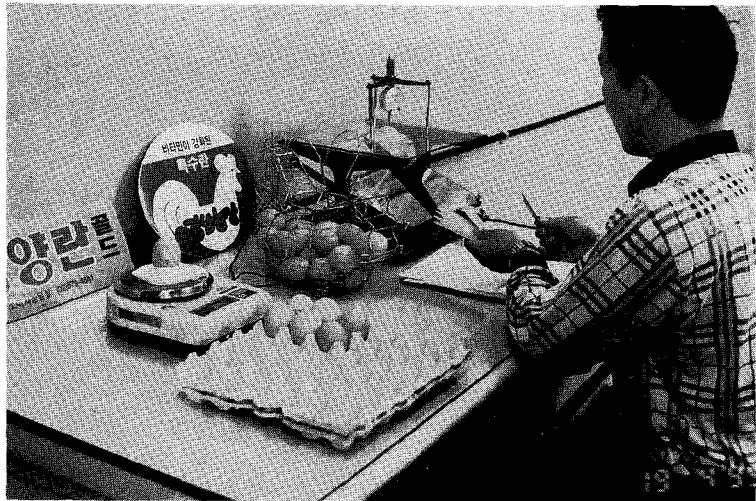
△물류센터의 윤활유 역할을 하는 강남농장직원들(왼쪽 두 번째 유통사업부 임장묵 부장)

는 점이다. 강남농장의 경우 생산한 계란을 물류센터로 옮겨져 포장하여 소비 매장으로 이동하는데 24시간이내면 가능하다. 배송시간의 단축은 물류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이에 대해 강남농장 유통사업부 강구만 차장은 “우리 농장은 2개의 물류센터를 운영하고 있지만 여주와 용인에서 매일 아침 5시면 수도권 할인매장과 식자재로 계란을 발주하게 된다. 여주 물류센터의 잉여 물량이 용인 물류센터로 이송될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계란품질 유지와 유통시간을 단축하기 위하여 여름과 겨울철의 상·하차 시간 대를 조절하고 있다. 기온이 높은 6~9월에는 계란 상차 시간을 저녁 9시로 하고, 또한 10월부터 5월까지는 오후 4시 이후에 상차하여 계란이 고온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다. 강남농장에서 생산된 계란은 24시간 안에 소비자의 식탁에 올라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말하였다.

3. 기능성 계란 공급에 전력

강남농장에서 유통되는 계란 브랜드는 15개로 이중 영양란 5종, 유정란 1종, 일반란 8종, 기능란 1종으로 위탁사육 생산 계란을 포함하여 1일 평균 46만개를 할인매장과 식자재 및 유제품회사에 납품하고 있다. 특히 영양란과 기능란은 강남농장의 대표적인 상품인데 영양란은 신선하고, 깨끗하고, 단백한 맛에 비타민E가 풍부하다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에그바이오텍의 기술과 강남농장의 사육 기

술이 접목되어 생산하는 닥터 IgY 계란은 위염, 장염, SE, ST을 예방할 수 있다. IgY 계란을 생산하기 위하여 백색계와 갈색계 6만수를 사육하고 있고, 생산된 IgY 계란은 식란과 유제품 가공란으로 월 140만개를 판매하고 있다. 유통사업부 이득용 부장에 의하면 앞으로 IgY 계란을 액란 처리하여 유제품 회사에 납품하는 생명공학 사업에 집중 투자하게 된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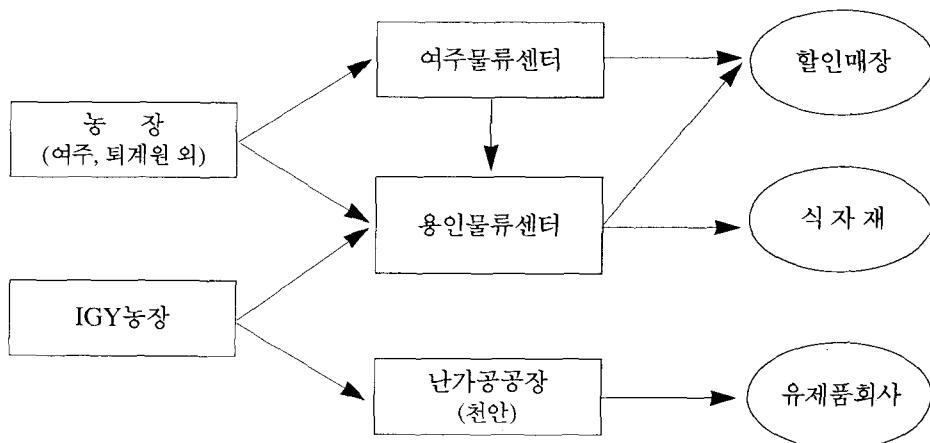
△계란의 품질검사를 최소 2주일 한번씩 실시한다.

4. 식자재 유통 규모 확대로 이윤 극대화 추구

강남농장 영업부 임장묵 부장은 “최근 대형 할인 매장 및 식자재 업체는 상인보다는 농장과 직거래하는 형태로 변하고 있으며, 사육 규

모가 40만수 이상인 농장들도 이와 같은 분위기에 편승하고 있다. 앞으로 대규 농장이 계란 유통 업계에서 입지가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하면서 “어차피 할인 매장은 질 좋은 제품을 값싸게 구입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농장과 경쟁하는 상인의 경쟁력은 떨어

〈그림1〉 강남농장 계란 흐름도



질 수 밖에 없다. 그러나 대형 할인매장의 경우 5% 이상의 이익을 내기 어려운 실정이므로 농장의 이익을 최대한 보장해 주는 업체와 거래가 시급한 실정이고, 식자재 유통량을 늘려야 안정적인 이익이 기대된다고 볼 때 앞으로 강남농장은 식자재 유통량을 월 300만개 이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대군 농장이 식자재나 할인매장에서 진출시 유통단계 비용을 절감하는 차원을 넘어서 생산비 이하로 가격으로 납품하는 상황이 벌어지면 한 농장의 덤펑 판매로 계란 가격 질서가 무너질 수 있고, 할인매장에 진출시 판매장려금이나 유통장려금을 지불할 경우 오히려 계란 납품 가는 높고 소득은 줄어드는 사례가 있으므로 농장에서 유통에 참여시에는 여러 측면에서 꼼꼼히 점검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5. 2002년 사업계획

1) 난가공사업 진출



△계란난가공사업 사업추진자 이득용부장(좌), ‘올곧은 정신’으로 부가가치란을 창출하는 강구만 차장

현재 강남농장은 IgY 유제품을 생산하는 업체에 IgY 계란을 1차 가공하여 납품하고 있다. 강남농장은 향후 부가가치가 높은 IgY 계란을 이용할 수 있는 제품 영역을 최대한 넓힐 방침이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임가공을 주고 있는 액란사업을 2002년에는 용인시 신갈에 액란 공장을 신축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2) 코스닥 등록 추진

강남농장은 단순 양계산물 생산 농장의 이미지를 탈피하기 위하여 사업을 생명공학을 전문으로 하는 법인 이미지에 초점을 두게 된다. 이를 위하여 2002년에는 개인 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하고 가능하다면 코스닥에 등록하여 회사의 발전뿐만 아니라 업계 수준을 높일 계획이다.

3) 종이난좌 자동화 시스템 도입 예정

현재 계란 유통시 플라스틱난좌는 80%, 종이난좌는 20%를 사용하고 있다. 플라스틱 난좌와 달리 종이난좌는 자동화하는데 제약이 많아 대부분의 종이난좌 포장은 수작업을 해야 한다. 종이난좌는 할인매장에서 소비자에게 계란 이미지 전달 효과가 뛰어나고, 재활용품으로 사용이 가능한 반면 해당 단가가 플라스틱 난좌에 비하여 높고, 수작업으로 인한 비용이 투입되어야 하는 단점이 있다. 강남농장은 이와 같은 상황을 고려하여 업계에서 종이난좌 사용이 증가되고, 국내 I사에서 개발하는 종이난좌 자동화 시스템이 완료되면 종이난좌 사용을 확대할 방침이다. **양계**